

“일찍 好學하다 書肆에 몸을 담고”

우리 출판계에 큰 자취 남기신 黃宗洙 선생을 추도합니다

崔德教

출판인·창조사 대표



故 黃宗洙 先生.

가을이 한창 익어가는 들판을 내다보는 마을, 여기서 歸去來辭를 읊는다고 하시던 고장, 평소에 자별했던 玄岩·三山 두 어른을 모시고 선생님을 뵈겠다고 맥 마당에 들어서는데, 선생님은 막 운명을 하시고 응급차에 올라서 저승으로 떠나시고 있었습니다. 때는 93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 맑은 날씨, 그 높은 하늘이 금세 회색으로 덮이면서 마을도 사라지고 들판도 없어진 듯이, 어디서 오는 쓸쓸함인지 우리를 흐느끼게 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이 이처럼 확연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표정과 차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던 선생님, 선생님은 이승을 떠나시는 순간에도 “죽음이란 이렇게 조용히 맞이해야 하느니라”고 담담하게 가르쳐 주시는 듯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던 올해 여든하나하신 玄岩선생은 친구를 보러 갔다가 그만 친구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가눌 수 없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지...”하고 먼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黃宗洙 선생, 선생은 1908년에 나시고 1993년에 떠나시니, 天壽 86세를 누리시며 파란만장했던 20세기를 거의 다 보시고 가셨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일본의 立命館대학 법과를 졸업하시고 한동안 고향에서 교육계에 계시다가, 1941년 서울 관훈동에다 一成堂이란 조선서적만 파는 책방을 차렸습니다.

그때 일본의 식민지, 하늘도 일본이 차지했고 땅도 일본에게 빼앗긴 채, 우리 민족이 말살되어 가던 어둡고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의 조선 지식인들을 쫓아보면, 많이는 총

독부쪽을 기웃거렸고, 아니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렇지 않으면 만주로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조선 안에서 살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의 일을 벌이 기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문화를 지키며 우리책을 보급하겠다고 책방을 차렸으니 그 일이 제대로 될 턱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죽이고 잡지를 없애고, 민족의 냄새가 조금만 나도 책은 그 자리에서 발매금지를 당했습니다.

선생이 남기신 「나의 出版 小話」를 잠시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은 210면 정도의 단행본이지만, 그 내용은 해방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증언으로 엮여진 우리 출판의 귀중한 史料입니다. 선생은 그 머리말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찍 好學(好學)하다 일제때부터 서사(書肆)에 몸을 담고, 혹은 고언(古彦)들의 손때 묻은 수택본(手澤本) 책뚜껑을 만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나온 책장 내용을 맡아가면서 소일하다가 대망의 해방을 맞이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이 경영하던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25전만 해도 학술서 출판에 一成堂, 학습참고서 출판에 研學社, 서적 도매는 조선서적판매주식회사(약칭 書販)의 트라이앵글 경영체를 이끌고 자못 의욕적으로 젊음을 불태웠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6·25의 전화로 말미암아, 2층 사옥·재고·그밖의 모든 물질

선생이 책방을 차린 것은

1941년. 책에서 민족의 냄새가

조금만 나도 발매금지를 당하는 처지에

책방은 잘 될 턱이 없었다. 그 후

출판에 관계하면서도 선생은 당신의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출판계를

위하여 늘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 애장서

2천여권을 내놓아,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적인 것이 회진오유(灰塵烏有)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휴전이 되어 서울로 돌아온 선생은 월간「고교영어», 월간「과학시대」를 발행했고, 중고등 학생의 영어교재, 영국 Lingaphone사의 어학교재 등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은 앞서고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는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되어가던 60년대 중반이나 70년대 쯤에 했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으리라고 하시던 아쉬움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전 서울에는 서적도매상으로 三中堂·有吉書店·博文書館·靑丘書店 등이 있었는데, 선생이 경영하던 書販은 단연 선두주자로서, 그 매상고는 언제나 랭킹 1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운송수단이 원활치 못하던 시절이라, 도매상에서 책을 포장하여 발송하는 것이

이제, 암기시대는 끝났다!

세포/물질대사/유전에서부터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생물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감칠맛나는 재미를 생생하게 전한다!

- 덜렁대는 늑대인간도 유전될까?(다양한 교배)
- 신은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생명을 창조했다?
- 생명의 비밀이 적혀 있는 신비의 사슬(DNA와 RNA)
- 신화와 전설은 진실에서 출발했다(신화와 전설의 생물학적 근거)
- 과학자란?(판스위스 교수의 철학 강의)

프랭크 H. 헤프너/윤소영 옮김 1,2권 각272면/각권 4,500원



전화 738-0931~2/팩스 720-3469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력이
바짐없이 들어 있다!

지식과 정보의 국제유통 다룬 연구서

전영표 지음 「정보사회와 저작권」



소위 3차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대변혁의 시대에 돌입한 오늘날에는 지식의 집약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적 정보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보의 전달과 유통에 따른 인간과 사회, 국가간에는 갭이 생기며, 또한 정보유통 자체는 문화의 고압국에서 저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영표 교수(신구전문대 출판학)가 상재한 「정보사회와 저작권」(법경출판사)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에서 지적 정보라 할 신기술과 지식의 이전문제를 세계 선진국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검토·연구하면서, 지식·정보유통의 원활과 합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서는 국제저작권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의 보호정신을 살피면서 저작권이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세계적 원점을 찾아 15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인쇄특권에서부터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구의 저작권법 발전경위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입법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저자는 베른협약의 조건에 맞추어 미국의 저작권법인 '미국법전 제17편'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역사도 더듬어 보고 있는데 초기 저작권법 개정에 미국과 일본의 저작권 이론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독일의 블룬트슈리과 콜러, 그리고 다니

엘 벨 등의 시각을 정리하면서 저자는 지적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자가 출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국내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논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치밀스키는 인간이나 출판물 등을 지식 이전의 매체로 제시하면서 특히 정보전달매체로서 출판물의 비중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영역에서 출판매체를 통한 지식이전은 매우 중요시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법제가 날로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판물에 의한 번역 등의 규제가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식의 유통에 상당한 장애요 소로 대두되고 있다. 저자는 국제협약 체결에 따라 번역출판물의 간행이 숫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책의 미덕은 그래서 더 확실해진다.

아니라, 대개의 경우 지방의 서적상들이 서울 도매상에 와서 책을 골라 꾸러가지고는 등짐으로 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대구에서 서점을 했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큰 출판사를 움직이는 K회장의 회고담입니다.

선생은 당신의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출판계를 위하여 늘 앞장서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을 10년 동안이나 맡으시고,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초석을 놓으시고 이사장을 9년 동안이나 지내셨습니다. 또 출판금고의 초창기,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초창기, 선생의 생각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으니, 그 지도력, 그 성실성, 그 인품이 어떠하셨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일입니다.

선생이 내신 책 중에는 후세에 남을名著가 많습니. 해방 후 一成堂에서 나온 책만 보아도, 申采浩著「朝鮮史研究草」方鍾鉉著「訓民正音通史」申瑛澈著「古時調新釋」丁泰鎮·金炳濟共著「朝鮮古語方言辭典」金亨奎著「國語學概論」孫洛範·具滋均共著「國文學概論」文一平著「湖岩全集」 등 힘 기울여 만드신典籍이 즐비합니다.

선생은 이처럼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흔한 상장 한장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은 세상을 떠나시기 몇달 전에 당신이 수십년을 두고 모아오신 愛藏書 2,000여권을 맡김히 정리하여 출판협회에다 내놓으셨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후배 출판인들에게 마음에 간직하셨던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우리 개

개의 출판사는 오랜 세월 속에서 그 부침과 명멸을 되풀이하겠지만, 민족문화의 큰 줄기를 있고 있다는 그 영원성을 생각할 때, 출판문화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개체는 명멸하지만 전체는 영원한 것, 출판인들이여 영원무궁할지어다.”

선생님, 편히 쉬소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黃宗洙 선생 약력

- 1908.1.1. 함남 端川서 출생
- 1930. 일본(京都) 立命館대학 법과전문부 졸업
- 1930~32. 함남 豊山 仁東학교 교장
- 1932. 무역업 平安公司 지배인(평양)
- 1938. 三一號商會 경영(만주 봉천)
- 1941. 一成堂書店 개업(서울 관훈동)
- 1946. 도서출판 研學社 창설
- 1946. 조선서적판매주식회사(書販) 설립
- 1947.3. 조선출판문화협회 창립 초대 이사
- 1948. 대한고과서주식회사 이사
- 1958~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9년간)
- 1958~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전후 10년간)
- 1963. 서울특별시 출판윤리위원
- 1969. 도서잡지 윤리위원
- 1969. 한국출판금고 이사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저희 청솔출판사에서는 아동출판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의욕적인 유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 문	인원	자 격	비 고
아동물 편집·기획	○명	4년제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아동 전문 출판 유경험자.	남자는 병역필한 자 여자는 미혼인 자
디 자 이 너	○명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출판미술 유경험자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원고지 5매 이내)

■ 접수장소

☎ 21210-11810 서울·서대문구 창천동 72-31 청솔출판사 편집부

■ 접수기간

1993년 12월 10일까지(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

1차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에 의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청솔출판사 편집부(☎ 334-2098)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TEL : 334-2098
FAX : 336-2381